

한집에 62명은 너무 많아!

송미영 지음 | 김다정 그림



3, 4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현대의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조사하여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1,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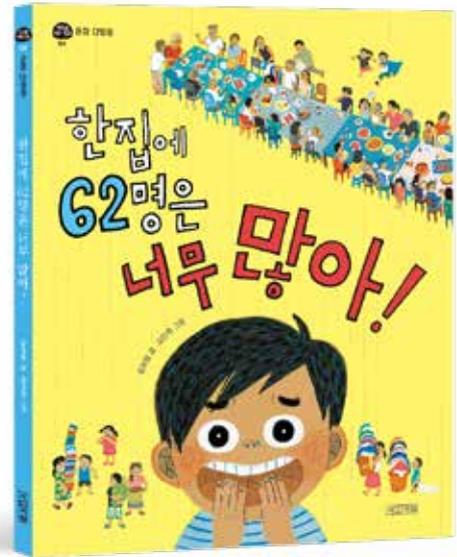
바른 생활: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생활을 한다.

즐거로운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가족을 살펴본다.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을 조사하고 발표한다.

5, 6학년

사회: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를 조사하고,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를 탐구한다. 의식주 생활에 특색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적, 인문적 요인을 탐구한다.

전 학년 다문화 교육



정보화, 세계화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쉽고 빈번하게 접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게 되었다. 지구촌 사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 인종, 지역의 문화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나라의 문화가 우리를 얼마나, 왜 다른가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지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촌 사회 학교' 시리즈 4권 『한집에 62명은 너무 많아!』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사회 그림책이다.

학습 목표

이 책은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이나 교도의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탁」으로 다양한 음식 문화를, 몽골 유목민의 「올해만 네 번째 이사」로 주거 문화를, 필리핀의 대가족 이야기 「한집에 62명은 너무 많아!」로 다양한 가족 모습을 말해 줍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는 다른 무엇을 먹고, 어떤 특이한 모양의 집에서 살고, 함께 사는 사람이나 수가 우리와는 다른 형태도 많다면서 외형의 다양성만 알려 주면 그저 그들이 이상하거나 신기하다는 마음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낯설고 특이한 문화에 거부감이나 우스꽝스럽다고 여기게 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나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가 이해되는 한편 우리는 어떤 가치와 자연환경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뉠 문화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은 자연과 공존할 때, 서로를 존중할 때 계속 유지된다는 깨침도 얻게 됩니다.

- ① 우리는 어떤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른 음식 문화와 비교해 봅니다.
- ② 생명을 살리는 밥상은 어떤 것일까 토의해 봅니다.
- ③ 집의 형태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나눕니다.
- ④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여 그립니다.
- ⑤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돌보고 지내는지 가족의 형태와 연결지어 찾아봅니다.
- ⑥ 책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찾고 나와 어떤 점이 같거나 다른지 찾아봅니다.
- ⑦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과연 한집에 62명이 살 수 있을까요?

-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몇 명인지 서로 물어보고 몇 명까지 같이 살 수 있을지 간단하게 주고받습니다.
- 가족이 가장 많이 모였을 때를 떠올려 보고 몇 명이나 되었는지 떠올려 짐작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 62명이나 살려면 집이 어떠한 구조가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나눕니다.



▶ 가족 수를 말할 때 부모가 안 계시는 아이들은 주눅이 든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탁은 어떤 걸까?

- 어떻게 만든 식탁(밥상)이 까다롭다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내가 받아본 식탁 중에 가장 까다로우 보인 식탁은 어떤 것이었는지 경험을 나눈다.

▶ 까다로운 식탁은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음식을 말하지 않고 가구로서의 '식탁'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어 내용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사가 자신이 받은 식탁(밥상) 가운데 격식을 지나치게 차려서 어려웠던 경험, 음식 만드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 힘들었던 경험, 만드는 시간과 방법은 오래 걸렸는데 밥상은 너무 소박해서 실망한 경험 등을 이야기해 주면 아이들의 생각이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 왜 올해만 이사를 네 번이나 했을까요?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이사를 다녔는지, 이사를 갔을 때의 마음을 이야기 나눠 봅니다.
- 한 해에 평균 네 번 이사한다면, 열 살이면 마흔 번은 이사한 셈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상상해 봅시다.

▶ 저학년은 아직 몽골 유목민과 게르를 본 적이 없어서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고학년은 제목 아래에 있는 아이의 모습과 몽골의 집 이야기라는 소재목을 보면 단박에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사할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 인도, 몽골, 필리핀은 어디에 있을까요?

- 세 나라에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세계 지도에서 그 나라를 찾아봅니다.
- 인도, 몽골, 필리핀 세 나라를 칠판에 적고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메모지에 간단하게 낱말을 적어 붙입니다.

- 메모지에 적힌 낱말을 같이 읽어 봅니다.
- 교사는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반응하고 시간이 충분하거나 특이한 낱말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까닭을 묻습니다.

▶ 인도, 몽골, 필리핀은 아이들도 잘 아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떠올리는 낱말이 부정적이라도 그대로 칠판에 적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글씨를 통해 눈으로 보여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독후 활동 1

책 읽고 나서 할 수 있는 질문과 대답

➔ 라주(자이나교)가 먹는 음식의 특징은 뭘까요?

-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손으로 먹는다 등

➔ 왜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탁이라고 했을까요?

- 생명을 해치지 않고 식탁을 차리려면 구별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뭘 먹어도 결국 생명을 해치는 거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쉽지 않아서 등

➔ 어요나(몽골 유목민)는 왜 네 번이나 이사를 갔을까요?

- 기축들이 한곳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사막으로 변하니까, 몽골 초원을 지키고 싶어서, 초원을 살려야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등

➔ 어요나 아버지가 초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뭘까요?

- 계절마다 게르 자리를 옮긴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염소를 더 많이 키우지 않는다, 살던 곳의 흔적을 지운다, 자연을 이용해서 의식주를 해결한다 등

➔ 리오네는 왜 62명이나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 바나나농장 일은 할 게 많고 고되기 때문에, 어려운 친척들이 있으면 함께 살자고 해서



➔ 리오네처럼 62명이나 함께 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또 어떤 점이 싫을까요?

-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지만 서로 도울 수도 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려면 할 일이 많을 테지만 서로 나누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귀찮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등

➔ 리오는 왜 울컥했을까요?

- 아무도 자기가 없어진 걸 몰라주는 것 같았는데 사촌들이 음식을 갖고 와 걱정해 주고 찾아 줘서, 60여 명의 가족이 모두 형편이 어려운 리오네 가족을 도와주는 걸 찬성했다고 해서 등



▶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에 따라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일 수도 있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가족이 몇 명인지보다 가족의 관계가 서로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독후
활동
2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 독후활동



➔ 생명을 존중하는 식탁 사진전(고학년)

-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이나교의 식탁처럼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존중하는 음식이나 식습관이 드러난 사진을 찾습니다.
- 채소만 먹는 것, 동물을 잘 키워서 먹는 것, 좁은 데서 약으로 키우지 않은 고기를 먹는 것, 맛있게 잘 먹는 것,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등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붙입니다.
- 사진전이나 발표회를 갖습니다.



▶ 생명을 존중하는 다양한 사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꼭 나누어야 훨씬 쉽고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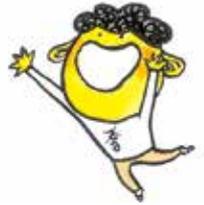
▶ 같은 방법으로 '세계의 식탁'을 주제로 나라마다 독특한 환경이나 조건, 종교 등에 영향을 받은 식탁 사진을 찾아 사진전을 해도 됩니다. 역시 왜 이렇게 먹는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런 것도 먹는다, 이런 것은 먹지 않는다 같은 접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밥상 차리기

-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뭘까 생각해 보고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 봅시다.
- 상자를 얹어서 밥상처럼 씁니다. 상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두꺼운 도화지로 상자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 다른 종이에 그릇 모양을 그려 여러 장 오릅니다.
- 오려 낸 그릇마다 자기가 차리고 싶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그립니다.
- 음식이 그려진 종이를 밥상으로 쓰일 상자 위에 붙입니다.
- 밥상 주변을 보기 좋게 꾸밈니다.
- 서로 보여주며 왜 이렇게 차렸는지 설명합니다.

▶ 저학년은 밥상을 차려서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 주는 과정에서 쉽게 소꿉놀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더 차려지고 밥상이 더 보기 좋게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 이야기를 나눌 때 김치 같은 발효 음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채소가 많은 음식, 콩을 많이 이용하게 된 까닭, 개고기 이야기 등 우리 음식의 숨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찾아봅니다. 고학년은 요즘 왜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나올까? 외식이 늘다가 다시 줄어들었다는데 왜 그럴까? 왜 혼밥(혼자 먹는 밥)이 유행일까? 등의 주제로 사회 현상과 연관 짓기 수업을 해도 됩니다.



▶ 게르 안에 가면 ○○도 있고, □□도 있고~

- 게르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 책 속 그림을 떠올리면서 순서대로 '게르 안에 가면 ○○도 있고, □□도 있고~' 놀이를 해 봅시다.
- 전기나 텔레비전, 전화기, 컴퓨터도 있고, 빛, 바람 소리, 하늘, 따뜻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게르 안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약간 억지스러운 것까지 나오면 놀이를 그만두고 자기 집과 비교해 봅시다.
- 게르와 우리 집은 ○○이 같다, 게르와 우리 집은 □□이 다르다 같은 문장을 완성해 발표합니다.

▶ 내가 살고 싶은 집 설계도 만들기

- 집에는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 봅니다.
-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나무나 종이를 이용해서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 고학년은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게 되었을까? 왜 요즘 주택 짓기,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을까? 처럼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수업을 해도 좋겠습니다.

➔ 숫자로 살펴보는 가족 변천사(우리 가족은 언제나 같은 모습일까요?)

- 숫자를 이용해 교사의 가족 변천사를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 예를 들어 3-4-5-4-1-2-3-4-2-1 같은 숫자를 제시해서 무슨 뜻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 '태어나 부모와 같이 살다 동생들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취직해서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반려견을 입양해 살고 있는데 언젠가 모두 떠나고 혼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 이렇게 가족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 학생들도 자기 가족의 변천사를 숫자로 발표해 봅니다.



▶ 이때 굳이 모든 학생들이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 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면 유명한 동화책 속의 가족의 모습을 예로 든다든지 교사 가족을 의도에 따라 바꾸어 소개해도 될 것입니다.

➔ '가족은 _____ 이다' 명언 만들기

- 개인 혹은 모둠이 의논하여 가족은 무엇일까에 의미를 두어 짧은 문장을 만듭니다.
- 지은 명언을 긴 막대기 같은 종이에 써서 서로 엮어 발로 만들어도 됩니다.

▶ 가족의 모습보다는 가족이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또는 가족이 화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 등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